

신안도초고, '세계 해양의 날' 맞아 해안정화봉사활동 펼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 사무소와 연계해 운영 '순비기나무 심기'·'EM 흙공던지기' 프로그램 실시

신안 도초고등학교는 세계 해양의 날(6/8)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 사무소와 연계하여 3차(5월 31일, 6월 7일, 6월 14일)에 걸쳐 도초 시 목해수욕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나갔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유네스코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역할을 기르는 동시에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학교와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해안가 숲길을 따라 걸으며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교육을 들었다.

특히 해양 오염과 사구의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며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했다. 한 예로 파도나 바람에 의해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순비기나무를 심었으며, 사전에 학생들이 직접 흙과 효소를 반죽해 빛이 발효와 건조를 거친 EM 흙공을 바다에 던져 해양 오염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9학년 학생은 "해안가 숲길을 따라 걸으며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로 망가진 바다를 보며 마음이 쓰렸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바다를 비롯한 자연환경을 조금이나마 치유한 기분이 들

어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도초고등학교 김장홍 교장은 "도초고 교육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중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를 달성하고자 실시하는 해양 정화 봉사활동 외에도 탄소중립 실천 주간의 일환으로 양치컵 챌린지, 다회용컵 사용 등 공동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섬마을인생학교'와 함께 지역공동체 교육과정 개발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행되는 2023학년도 자율적 교육과정 주제인 '지속가능한 섬교육(IESD) 커뮤니티 매핑' 교육활동과 연계하는 교육선상에서 새로운 지역교육의 전형을 만들어 가고, 교육공동체 모두에게는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중, 학생·교직원과 숲체험 걷기 실시

무안중은 최근 고하도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체력을 향상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숲체험 걷기를 실시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건강증진 통합교육 학교로 지정된 무안중은 고하도에 있는 숲길을 걸으며 체력을 단련하고, 고하도 서식 식물도 탐색하면서 전망대에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농생명산업진로체험을 실시했다. '어쩌다 식물학자'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실습을 통해 참나무를 분류해보고, 양지꽃을 표본으로 만들어 보는 체험학습을 했다.

또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는 ESG경영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인 ESG 경영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기후 변화 등에 대해 사

회적 책임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이런 기업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수반 학생인 정재연 양은 "오늘 박주영 선생님과 김미순 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케이블카도 타보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걷기가 몹시 힘들었지만 난생 처음 계단을 밟아보아 기뻐했다. 그리고 가방에 동백꽃을 아름답게 색깔하는 체험활동도 몹시 재미있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 행사를 총괄한 이지연 보건교사 겸 진로상담교사는 "학생들이 모처럼 숲길을 걷고,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친구들과 오순도순 정겹게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우정을 다질 수 있어 좋았다."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교육이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매우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무안=이기성 기자

광양 광영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방문 체험학습 실시

광양 광영고등학교의 생명과학과 바이오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 25명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생명공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광영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 김성중은 이공계 생명공학 및 약학, 화학 분야의 진로체험을 통해 동일 계열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하고, 백신 제조 및 품질시험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생명과학과 바이오 관련 진학에 대한 동기 부여하기 위하여 2학년 25명과 함께 화순군에 위치한 (재)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방문하였다.

이날 체험에서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생명과학과 바이오관련 진로 희망하는 2학년 학생 25명 참여



대한 설명과 백신 제조 및 품질시험 소개, 임상 시험검체분석 시험실 및 백신 품질시험 시험

실을 견학한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광양=김현근 기자

장성 진원동초, 전교생·학부모회·교직원이 함께 학교 텃논에 모내기



장성군 진원동초등학교는 매년 150평가량의 학교 텃논에 모내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15일 오전부터 전교생과 마을학교, 학부모회 교직원이 함께 모여 학교 텃논에 모내기

매년 150평가량의 학교 텃논에 모내기 실시

를 실시했다.

모내기 앞서 작년에 수확하였던 쌀을 방앗간에서 찰쌀과 바꾸어 찼 찰밥에 떡메를 치고 둥근 접시를 굴러 알맞은 크기로 찢고 콩고물을 묻혀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먹는 체험을 했다.

모를 심은 옆 텃밭에는 4월에 심은 상추, 고추, 오이, 가지, 호박, 방울토마토, 참깨, 들깨, 참외, 수박, 옥수수, 케일, 고구마 등 20여 가지

의 작물들이 짙은 녹색으로 튼튼하게 자라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혀가고 있었다.

진원동초등학교는 생태환경교육과 놀이중심 교육 운영을 위하여 텃밭, 논 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명 순환의 과정, 흙의 소중함, 계절의 변화, 관찰을 통한 탐구능력, 땅의 의미와 수확의 기쁨을 배우고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성=김수권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